

시민 참여로 금융취약계층 빛 탕감

생활형편 어려운 시민 2명, 전주 금융복지상담소 채무조정·민간협의회 지원 받아

빛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서민들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의 채무조정과 금융복지 민간협의체의 채무변제 지원을 통해 빛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빛을 지고 어려움을 겪어왔던 금융취약계층 시민 2명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의 채무조정과 '금융복지 민간협의체'의 지원을 받아 신용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복지 민간협의체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고 전주고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원불교 전북(전주)교구 등 전주지역 내 4대 종교단체와 시민후원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민간협의체의 채무 변제 지원을 받게 된 최초 수혜자들은 상담

소에서 채무상담을 진행하고, 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을 통해 총 채무액 1,277만원(이자포함) 중 1,147만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잔여채무 130만 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빛을 모두 갚았다.

수혜 대상자인 김모(38, 여)씨는 8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선천적 시각장애(1급)를 갖은 딸(9)과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다른 채무자 신모(63, 여)씨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간암으로 투병중인 취약계층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수시로 채권추심에 시달려오다 민간협의체의 소액채무 변제 지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금융복지 민간협의체가 서민 금융복지 지원에 가세하면서,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빛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와 빛 탕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원금으로 빛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소각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서민금융복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담소에는 소장와 상담사 등 3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에 대한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작성을 돕고 있다. 또,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에 따

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일자리안내, 복지연계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위한 업무와 함께, 주민센터와 자활센터,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가계재무관리와 불법사금융피해예방 등을 위한 시민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상담소는 현재(4월 24일)까지 취약계층의 범법채무조정진행 28건(개인회생 10건, 파산 18건)과 복지제도연계 22건, 일자리 안내 7건, 금융기관 상담시간 채무조정 13건, 저금리 대출 전환 53건 등을 처리해주는 등 총 882명에 대한 금융복지 상담을 제공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담소를 찾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더 간간하게'

전주시, 개인정보시스템 담당자 수준진단교육

전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개인정보시스템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수준진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자체 진단함으로써 보안 관리의 미흡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 수행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절차서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참석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개별적으로 온라인(www.privacy.go.kr)을 통해 점검하고, 객관적인 진단에 따른 미비점을 스스로 보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익히는 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 개인정보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U-20 월드컵 대비' ... 라마다호텔 주변 정비

전주시, 앞 도로 대동로 확장 객사 5길 정비 등 6억원 투입

전주시가 오는 5월 25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라마다호텔 주변 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6억원을 투입해 월드컵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과 FIFA 관계자들의 숙박장소로 사용될 라마다호텔 주변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인 대동로를 확장하고 전주객사 5길을 정비하며 오거리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부터 대신증권사거리~우신호텔사거리 대동로(공구거리) 미확장 구간 80m에 인도를 개설하고, 도

로 폭을 기존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우신호텔사거리에서 문화광장오거리까지 전주객사5길 인도 미개설 구간 130m에는 폭 1.5m~3.5m의 인도를 도로 양측에 개설해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비신호 평면교차로였던 문화광장 오거리에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월드컵 대회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U-20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공사인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서행운전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김승수 시장, 전주국제영화제 대비 최종 현장점검

김승수 전주시장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비해 개막식 등 주요행사가 열리는 옥토CGV주차장 전주 돌상영관 등 영화의거리 일대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영화제 개막을 이틀 앞둔 25일 전주 영화의거리에서 개막식 공연 시설 및 콘텐츠 상태 등을 점검한 것을 시작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쾌적하고 사고 없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이번 영화제의 개·폐막식을 비롯한 주요행사와 영화상영, 이벤트 등이 영화의 거리로 집중돼 영화제 기간 동안 인근 지역이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거리 문화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현장과 주차장 확보 및 차량통제 대책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한편,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7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열린다.

/김민근 기자



2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노동단체 23곳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쳤다.

도선관위, '경로당에 수백만원어치 물품 지급' ... 현직 전주시의원 고발

지난 12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도우면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시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8일과 9일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물품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견적서를 넣고 신청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는 한편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별건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